

우 리 의 목 표



- 친목
- 복지후생 증진
- 언론문화 창달

자유를 즐기려는 사람은 많아도
자유를 지키려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 건국대통령 이승만

大韓言論

Korea Journalists Club

月刊

8

2007년 8월 1일
제 257호

사단법인 大韓言論人會

발행인 諸宰馨 편집인 金珧熙

100-745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T. 02)732-4797, 2001-7621 F. 02)730-1270
www.kjclub.or.kr E메일 kjc1405@hanmail.net

• Issue & Words

건국은 靑南·仁村의 업적

해방공간 좌우 투쟁 끝에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남한은 공산화에서 벗어나 다원주의 체제로 가는 터를 마련했다.
그것은 인기가 있던 몽양(夢陽)이나 백범(白凡)이 아니라
인기 없던 우남(靑南) 이승만, 그리고 인촌(仁村) 김성수의
역사적 업적이다.



• 대한민국 정부수립

夢陽과 평화통일

해방 후 지도자들의 시대인식과 현실대응 방식
병자호란 때 主戰論 和戰論처럼 갈렸지만
국제정치나 남북관계를 생각할 때
一刀兩斷하기 어려운 일이라...

글 · 남재희 (5면)



8·15 국경일 경축의 참뜻

광복절을 대한민국 建國節로

8·15 광복절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로부
터 해방된 날이라는 뜻이다. 다른 하나는 1948년 8
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세계만방에 그
독립을 선포한 날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세간에 알
려진 것은 전자 뿐이다. '국어대사전'(금성사)에서
'광복절'을 찾으니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
방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되어 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광복절'을 검색하니 역시 '우리나
라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겼던 나라의 주
권을 다시 찾은 날'로 되어 있다. 이처럼 대표적인
두 국어사전은 광복절이 대한민국의 생일이라는
보다 중요한 뜻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

해마다 정부가 거창하게 치르는 광복절의 행사
도 마찬가지이다. 그 날에 발표되는 대통령의 경축
사나 특별 담화는 수년 전부터 통일문제와 관련하

것이다. 애당초 잘못 세워진 나라이니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정부고 민간이고 그렇게들 열심히
통일운동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에 출간한 졸저 '대한민국 이야기'(기과랑)
에서 쓴 대로 1945년 8월에 있었던 해방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지만, 1948년 8월에 있었던 건국의 의
미는 그보다 열 배나 더 소중하다. 건국은 개인,
자유, 사유재산, 시장, 법치 등 현대 인류가 공유하
는 보편적 문명요소로 근대적 국민국가를 탄생시
킨 사건을 의미한다. 건국의 방향이 옳았기에 초창
기의 혼란을 어느 정도 극복한 1960년대 이후 세
계가 놀라는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며, 또 보통선거
로 정권을 교체하는 고급스런 민주주의도 성취하
게 됐다. 그에 비해 1945년 8월의 해방은 우선 우
리 민족의 힘으로 쟁취됐다기보다는 자본주의 세
계체제의 구조변동으로 주어진 사건이었을 뿐더러

진정한 의미의 光復은 1948년 8월 15일 建國 그날에 찾아왔다



이영훈

· 서울대 교수
(경제학부)

여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로 채워졌다. 민간에서는
정치색 짙은 통일축대 행사가 서울과 평양을 오가
며 요란하게 열렸다. 어디서든 그 날에 대한민국이
태어났음을 경축하는 기념사는 한 마디도 들리지
않는다.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이다. 대한
민국이 세워진 날이 언제냐고 물으면 상당수의 학
생이 개천절이라고 대답한다. 1948년의 광복절 그
날이라고 제대로 맞히는 학생이 거의 없는 지경이
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은 자기 생일을 잊어버린
나라이다. 누구도 생일을 챙겨주지 않는 팔시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역사교과서를 들추면 짐작한대로 대한민국의 건
국이 얼마나 초라한 대접을 받고 있는지 눈물이
날 정도이다. 현행 고등학교용 '한국 근·현대사'
(금성사판)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기술이 나온다.
'통일 정부의 건설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과 여러
정치 세력의 반대 속에서 1948년 5월 남한 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온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억
지부리로 세워진 '남한 만의 단독 정부'에 불과한

어떠한 방향으로 국민국가를 세울 지에 대한 민족
적 합의가 성립돼 있지 않아 곧바로 심각한 분열
과 대립으로 이어진 사건이었다. 그 결과 한반도의
북쪽에는 개인보다는 계급, 사유재산보다는 국유
재산, 시장보다는 계획을 중시하는 국가가 들어섰
지만, 건국의 방향이 틀렸기에 엄청난 재난을 북녜
동포에 안겨준 실패한 국가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연유로 진정 경축할 역사적 사건은 1948
년 8월의 건국이지 그 3년 전의 해방은 아니다. 언
젠가 보게 될 통일 민족국가도 대한민국의 건국이
념이 북쪽으로 확산되어 북녜 동포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문명을 누리는 형태이지 않으면 안 된
다. 그렇게 보면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은 장차
수립될 통일국가의 출발이기도 한 것이다. 광복절
의 역사적 의미를 그렇게 새긴다면, 많이 늦었지만
올해부터라도 광복절을 건국절의 의미로 제대로
경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건국사를
비하해 온 왜곡된 역사의식을 바로 잡을 수 있으
며, 무분별한 통일논의에 차가운 이성의 제동도 걸
수 있을 것이다.

‘30年史’ 편찬 작업 순조롭게 진행

간행·편찬 합동회의서 최종 점검

‘대한언론인회 30년사’와 회보 축쇄판(제2집) 편찬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7월 30일 열린 간행·편찬위원 합동회의에서 최종적
으로 점검한 결과 집필이 거의 끝나 늦어도 10월 중에
는 출판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형(諸宰馨) 본회 회장은 이날 “대한언론인회 30
년사는 우리 언론인회가 30개 성상을 휩 쌌이 달려온
'언론자유 지킴이'로서의 소중한 역사이자 생동감 넘
치는 비망록”이라고 말하고 집필을 맡은 편찬위원들의
헌신적인 노고를 치하했다.

대한언론인회 30년사는 총론 편 '언론사적으로 본
대한언론인회 30년' 제1편 창립 정신, 제2편 성장과
도약, 제3편 정체성 확립과 언론 창달, 제4편 대한언론
인회보 30년, 제5편 언론인 명예의 전당·대한언론상,
제6편 활발한 출판·공익사업, 제7편 체력 단련·후생
복지사업 등 7개편과 부록(본회 연역 및 각종자료)으
로 편성됐다.

특히 '정체성 확립과 언론창달' 편에서는 본회가 발
표한 각종 시국성명과 언론상황보고서, 대토론회 등이
사안 별로 잘 정리돼 있어 언론 사료(史料)로서의 가
치가 충분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언론인회보 축쇄판
(2집) 출판도 순조롭게 작업이 진행돼 '30년사' 발간
과 동시에 간행 될 전망이다.

CONTENTS

· 이달의 大韓言論

Issue & Column

③

‘奇人’의 命理學

Issue & Opinion

⑦



· 선거여론조사
과연 믿을 수 있는가?

Golf & Cinema

⑧~⑨

· 언론계의 골프 꾸러기들 - 매스컴회 뉴페이스
· 영화탐험 - 길 La Strada

Book & Book

⑫

· 박정진 시 집 '독도'
· 역사인물소설집 '나를 여왕이라 부르라'
· 최영정의 '유익한 골프용어 정답'

Members Company

⑬

· <경제풍월> 발행인 裴 秉 休 회우



한국의 중심, 강한충남

審社熟考

기업들이
충청남도로 가려는 이유



한국의 중심, **신나게 기업하는 충청남도**
대한민국을 새롭게 이끌어 갑니다.



- 국내는 물론 동북아 진출이 가능한 전략적 장소
- 자연재해에서 안전지역, 안정된 노사문화의 정착
- 용도별 세분화된 용지 공급, 전문인력 확보 편리
- 지역내 인프라 완비 및 향후 발전잠재력 보유
- 행정기관의 기업지원 열의와 최고의 인센티브 제공

 경제통상실 기업유치팀 042) 220-3860

 충청남도 www.chungnam.net

溫故知新

‘奇人’의 命理學

“고등교육을 받으셨고 대신문사의 최고 직까지 지내신 분이 사주(四柱) 등命理학에 몰두하시는가 하면 풍수지리에도 깊이 빠져있다고들 하니 어찌된 셈 입니까?” 하는 등 아우조의 질문을 심심찮게 들곤 한다. 이럴 때마다 나는 지금으로부터 54년 전 피난수도 부산에서 겪은 이야기를 대신하곤 한다.

그때는 6·25전쟁 중이어서 동아일보가 부산에서 발행될 때이다. 어느 날 아침 출근 하자마자 전화를 받았다. “김종회(金從會) 의원이 오늘 새벽2시에 별세했습니다”하는 소식이 아닌가. 물론 당시 28세였던 최연소 의원의 돌연사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보다도 더욱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은 그해 연초로 기억되는데 사주, 풍수지리 등 命理학에 조예가 깊은 친구 한사람과 ‘시온’이라는 다방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마침 김종회 의원이 까불까불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재는 6~7월께엔 죽을 놈인데 저렇게 까불고 돌아다닌다”고 하는 말을 듣고 “앞길이 천만리 같은 최연소 정치인을 두고 왜 그처럼 방정맞은 소리를 하느냐”고 나무랐던 기억이 떠올라서다. 김종회 의원이 별세했다는 전화 한



李東旭

· 본회 명예회원
· 전 동아일보 회장

통이 나에겐 일생을 뒤집는 충격이 될 줄을 그 누가 알았으리오.

그때부터 그 친구한테서 사주 등 命理학에 관한 서적들을 추천받아 공부를 시작했다. 한편으론 아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체면 불구하고 생년월일시를 물어서 맞고 안 맞고는 막무가내로 그의 운명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흠뻑 빠지는 일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사주 등 命理학에 빠지다 보니 인천(仁村) 김성수(金性洙)씨와 같은 부귀를 겸전한 사주는 어떻게 나왔으며 호암(湖巖) 이병철(李秉喆)씨 같은 부자의 운명은 어떻게 태어났는지 등으로 공부에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의 선산을 찾아가 산의 지맥이 어디로 뻗었고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살피는 일에 시

간과 정력을 쏟을 때가 많았다. 그런 인생을 90까지 살았으니 ‘기인’(奇人)이라는 말을 들을 만도 했다. 하지만 250년의 역사 밖에 못 가진 경제학을 공부하는 것은 정상이고 5천년의 긴 역사를 지닌 주역(周易) 등 命理학을 공부하는 것이 왜 비정상이라고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을 감추지 못한다.

요즘 12·19대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와서 그런지 “누가 대통령이 되겠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요즘 나는 “대선주자들의 생년월일시를 정확히 알아오라”면서 즉답을 피하곤 한다. 과거의 예를 보면 이론대로 때가 되면 맞는 경우가 많았지만 희망적 관측에 치우치다보면 맞지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97년 대선(大選)에서 김대중씨가 당선된 것이 그랬고 이회창씨가 안된 예가 그럴 것이었고 2002년의 노무현씨와 이회창씨의 관계도 역시 그럴 것이었다.

그리고 운명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사주구조가 어느 정도의 것이며 운이 좋으나 나쁘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안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분은 대운(大運)이라 할 수 있는데 ‘꿈’이 아닌 인사도 있다. 이것저것을 모두 겸전하기는 대단히 어려우나 지금 뛰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눈에 띄는 분이 없지는 않은 것 같다.

클릭! 이 한마디

‘언론자유 위해 國保法 폐지’ 라니

한국 언론의 기형적 상황

국정홍보처와 기자협회, PD연합회, 언론노조, 인터넷신문협회 등 4개 언론단체가 브리핑룸 통제합을 비롯한 취재통제 조치의 보완책을 협의한다면서 “정부와 언론단체는 국가보안법이 언론자유를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고 합의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지난 17일 대통령이 4개 언론단체 대표들과 가진 토론회에서 기자협회장이라는 사람이 내놓았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언론자유와 같은 선상(線上)에 놓고서는 도저히 이야기될 수 없는 법”이라며 “국가보안법도(브리핑룸 문제와) 함께 논의하자”고 했다.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는 취재 통제를 성토해야 할 자리에서 그야말로 ‘자다가 봉창(封窓) 두들기는 소리’를 한 셈이다.

대통령과 몇몇 언론단체의 지난 17일 토론회는 다들 목격했듯 대통령의 빗나간 언론관(言論觀)을 홍보해준 ‘들러리’ 토론회였다. 주로 정권과 친한 일부 단체 대표들이 나와 맥없는 얘기들을 하는 바람에 대통령이 “오늘 패들들 잘못 나오셨다”고 비아냥거릴 정도였다. 한국의 언론 현실에 대해 정권과 아무런 이견(異見)이 없는 한통속 단체들이 정권과 어깨동무를 하고 합의했다는 방안 역시 한심할 수밖에 없다...

명색이 언론단체라는 집단이 정권과 함께 어설픈 좌파 이념에 동승(同乘)해 국보법 폐지에 합의한 우스갯짓은 한국의 언론 현실이 얼마나 기형적(畸形的)인 상황인가를 보여준 셈이다.

· 조선일보 7월 12일 ‘사설’에서

취직하는 언론인들

요즘은 폴리널리스트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정치인과 언론인(journalist)의 합성어인데, 우리 말로 정치언론인이라고나 해야 할까. 편집국장 논설위원 정치부장과 같은 현직은 물론, 많은 퇴직 언론인들이 각 대선주자의 캠프에 들어갔다.

처음부터 정치판에 가기 위해 기자가 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언론계에서 쌓은 명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이다.

개중에는 그 동안의 언행과 정 반대 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 밑으로 들어가 고개를 가우뚱거리게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폴리페서들은 나름대로 전문 분야의 식견과 연구업적이라도 있어 대선주자를 보좌하고 때로는 이끌어가지만 언론인들은 무엇으로 버티나.

언론계에 있는 동안에 익힌 안면과 네트워크, 특히 그가 몸 담았던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 이런 것들이다. 언론 자체에 대한 전문성이나 학문적 깊이는 현실정치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폴리널리스트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바로 이 대목에서 두드러진다. 그들의 활동은 공정보도를 저해할 수 있다. 과거와 달라서 요즘 언론계 후배들은 선배, 특히 퇴직한 선배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니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이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막말로, 그들은 벼슬자리를 얻거나 살 길을 마련하려고 취직을 한 것 뿐이다...

임철순 (주필)
· 한국일보 7월 20일 ‘오피니언’에서

가짜들의 시대

과학적 합리성이 이끄는 비판적 검증은 민주주의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진짜와 가짜 정치인을 판별하는 시민들의 정치적 판단 능력은 현대 정치에서도 사활적 중요성을 지닌다. 집권 초기에 참여민주주의의 시늉을 잠깐 내는 듯 하더니 거듭된 실정(失政)으로 민심이 떠나 버리자 참여정치를 아예 포기해 버린 자칭 ‘참여정부’의 행로를 보라.

“당신들 가짜 아니냐”는 세상의 차가운 힐난에 대해 자기가말로 진짜라며 홀로 목청 높이는 것도 정체가 드러나 버린 가짜의 애처로운 모습을 닮았다. 대선을 앞두고 가열되고 있는 후보 검증 과정도 이런 맥락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흥미롭게도 학력 위조 여부로 시비의 초점이 된 앞의 교수(신정아)는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 그 메아리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겠지만 가짜가 오히려 득세하는 이 시대의 지침이 될 만한 말이다. 어제까지 정치 비평의 붓을 휘두르던 언론인이 오늘 특정 대선후보 진영으로 내달리고 고상한 사회평론을 일삼던 교수가 정치인의 숨은 참모 노릇을 마다하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불가피하다.

가짜가 활보하는 시대는 불행한 시대다.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하는 이들이 진짜다. 결국 세상을 지탱하는 힘은 이런 평범한 진짜들에게서 나온다.

윤평중 (객원논설위원·한신대 교수)
· 동아일보 7월 11일 ‘동아광장’에서



· 부 음
삼가 명복을 빕니다

徐承璧 본회이사 별세



· 서승벽(徐承璧) 본회 이사가 7월 20일 새벽 3시 40분 삼성서울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80세.

고인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1952년 제일신보사 기자로 언론계에 투신, 경향신문사 기자, 현대경제일보사·일요신문사 공무국장을 지냈으며 KOC 감사, 해외건설협회 사무국장, (주)근하실업 대표이사 회장을 역임했다. 타계하기 전까지 대한조정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했다.

부인 장정애 여사와의 사이에 2남 1녀를 두었다.

본회에서는 조화를 보내고 제재형 회장과 이해복 상임고문, 김건이 사무총장 등 여러 회우가 문상했다.

· 弔 辭

서승벽 형!

대서(大暑)를 며칠 앞둔 7월20일 새벽3시40분 삼성의료원에서 홀연히 운명(殞命)하셨다는 비보를 듣고 망연자실한 심정을 가늠 길이 없습니다. 얼마전 까지도 대한언론인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옹은 말, 바른 이론을 펴시던 모습이 선한데 그다지도 깊어진 지병(持病)을 몰랐던지, 알고도 밖으로 내색하지 않았던지, 갑작스런 타계(他界) 소식은 우리 친구들을 어리둥절케 하였고 다시한번 인생무상을 느끼게 합니다.

서형은 6·25 전쟁이 터지자 육군 정훈 대대에 들어가 국란극복에 헌신하다가 1952년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 졸업과 동시에 언론계에 투신, 제일신보, 세계통신, 경향신문 등에서 13년간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1965년부터는 현대경제일보와 일요신문사 공무국장을 지내면서 신문 짚는 운전기를 다루었지요.

그 뒤로 신탁은행의 한신 부동산(주) 상무이사가 되어 남산 1·2터널 굴착공사와 연양고속도로 개설 공사를 지휘했고 한신증권(주) 전무로 5년간 일하고 해외건설협회 사무국장 일을 보다가 몸소 청화기업(주)과 근하실업(주)을 설립, 최근까지 이를 경영해 왔습니다.

그보다 더욱 회상되는 일은 대학생 시절부터 조정(漕艇)선수로 배타기를 좋아 하시더니 28년 전인 1980년에는 대한조정협회 회장에 피선, 두차례(2대·7대) 연임하다가 명예회장으로 추대된바 있습니다. 1964년 제18회 동경올림픽 때에는 국가 조정 감독으로 선수단과 함께 출전했으며,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에는 대표선수단 부단장으로 선수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또 1995년부터 7년간은 KOC 감사로 봉사, 후진 선수 양성에 힘 썼습니다.

큰 소리 내지 않고 소곤소곤 얘기하며 좌중을 휘어잡는 리더십의 소유자인 서형은 지난번 제15대 대한언론인회 회장 선거 후 사무 인수·인계 위원으로 수고한 연후엔 이사회의 일

徐承璧 형 영전에



원으로서 언론인회 발전에 힘을 보태어 왔습니다.

불의를 미워하고 항상 정의의 필봉을 구사했던 서형께서는 현실 정치에도 관심을 갖고 한나라당 중앙위원으로 봉사 했습니다. 빈소에 도열된 조화 속에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 강재섭(姜在涉) 한나라당 대표, 이강두(李康斗)중앙위 의장 등의 꽃이 섞인 것을 보더라도 한나라당에서 차지하는 서형의 비중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한나라당에 바란다’는 글을 중앙당사에 보내면서 “한나라당이 정신 차리고 좌파 세력을 경계해야 대한민국 헌정사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고 역설하는 장면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향년 80세로 천수(天壽)가 다한줄 짐작하고 주변정리까지 하신 서승벽 형은 마지막으로 가톨릭에 귀의, ‘베드로’란 영세명을 받았다고 하니 육신은 비록 파주 통일동산 동화경모공원에 묻혔으나 영혼은 질병과 고통이 없는 천국에 올라가 영생복락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인애하신 친구 서승벽 형!

함경남도 고원군 군내면 사창리에서 서강석(徐康碩)공과 강부전(康富田)여사의 9남매(3남6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유복한 가정으로서 함흥 농업중학 재학시절 ‘함흥학생 의거사건’으로 쫓기다가 월남했습니다.

부인 장정애(張丁愛·75)여사와 슬하에 2남1녀를 두었고 장남 서정국(徐廷國·의사)씨와 딸 며느리 김은숙(金銀淑·한일관 대표)의 주관으로 지난 2월 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온 가족이 모인 가운데 팔순(八旬) 잔치상을 받았다고 하니, 이승에서 누릴만한 복은 다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세상 먼지 다 털어 버리고 고이고이 잠드시길 기원합니다.

2007년 7월 22일 朴永植 재배

■ 회비 내신 회우

· 2007년분
김광섭 김승웅 김유동 김 철
김후란(04~07년) 노영태(08년)
박권흠 이화복 최병요 황대연
서진섭 천승준
· 2006년분
김유동 조창화

농협 056-01-105628 예금주: 대한언론인회

♣ 본 회 日 誌 (7월)

- 4일 = 상반기 정기감사
- 6일 = 30년사 편찬회의
- 12일 = 회보 편집회의
- 17일 = 제헌절 공휴일
- 27일 = 산악회 관악산 등반
- 30일 = 30년사 간행위원회

♣ 주소·전화 바뀌었습니다

- 김종열(金宗烈)회우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경남 아너스빌 106동 401호 전화: 070-7567-0770
- 이환의(李桓義)회우 = 서울 서초구 방배4동 805-1 라빌라트 402호
- 김진섭(金鎭燮)회우 = 전화: 02-387-2290
- 김승웅(金勝雄)회우 = 전화: 011-9928-9147

♣ 본회 내방 (7월 1~30일)

- 회우 강승훈 김광희 김영일 김유동 김 호 노영태 박 실 박영식 박정진 신동철 신우식 심재복 유선호 유한준 이용호 이억순 이종희 이정석 이혜복 임응식 최선록 김재영 한영탁 홍원기 김 집 장석훈 김후란 정기정
- 손님 박진열(스포츠 한국 사장) 박재욱(전 한국일보 기획위원) 이웅기(육영재단 운영위원장) 최수환(기독교 민주당 총재)



자유롭게 묻고 느끼며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가득한 세상, 한국언론재단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언론문화의 패러다임입니다. 언론인들을 위한 교육과 소통의 장을 만들고 국민들과 세계가 공감하는 밝은 언론의 미래! 한국언론재단과 함께 하십시오.

해방공간
재조명

夢陽 呂運亨과 평화통일

· 이글은 7월 19일 오후 서울 역사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몽양 여운형선생 서거 60주기 추모 학술심포지엄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남재희 회우의 발언요지이다.
〈편집자〉

마침 몽양 여운형(夢陽 呂運亨)의 노선과도 관련이 되는 것인데 나는 전에 <국회보>에 기고한 <드라마 '서울1945'로 연상되는 일들>이란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오늘의 시점에서 결론론적인 것이기에 판단이 비교적 쉽게 내려지겠지만 당시의 상황에서 그렇게 쉽게 결론이 내려질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해방 전후사의 인식>과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의 논쟁도 북의 실패가 확실해진 오늘날에 진행되는 양상과 해방 전후의 '실존적 결단'이 요청되던 당시와는 다를 것이라고 짐작한다.”

몽양 노선, 그 가운데서도 특히 좌우합작에 의한 통일노력을 생각할 때 신간회의 좌우협력, 중국에서의 우리 독립운동단체들의 좌우협력이 상기되며, 또한 중국에서 두차례 있었던 국·공합작이 크게 떠오른다.

해방 후 몽양의 좌우합작은 조국분단의 방지, 즉 통일국가건설이 목적이었고 그때의 이데올로기 차이(差異)는 그후 그것이 각각 체제(體制)로 굳어진 지금처럼 엄격한 것이 아니고 얼마간 상대적이기도 하고 신축적인 것이었다. 주변에 미국, 소련, 중국 등이 있으니 항일(抗日)의 방편으로 때로는 우(右)를, 때로는 좌(左)를 택했을 법도 한 것이다.

몽양의 좌절은 동서냉전의 조짐과도 관련이 되지만, 좌우합작의 많은 전례에 비춰볼 때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는데도 있다. 중국의 공산화 후 미 국무성이 발행한 <중국백서>가 크게 참고가 되는데 우리의 행방공간의 일들을 다루는 그런 수준의 책이 나왔으면 싶다. 중국에서는 결과적으로 좌에 도움이 되었다.

지금은 좌우합작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데올로기가 각각 체제(體制)로 굳어진지가 반세기 이상이고 전쟁을 치르고 그 후유증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이니까 말이다. 물론 그동안의 좌절을 통해 교조적도그마가 어느정도 유연해지고 실용주의적인 가미가 있어서 달라진 면도 있겠지만...

남북은 그동안 꾸준히 화해정책을 추진해왔다. 박정희 대통령 때의 7·4남북공동성명도 어쨌든 중요하다. 지금 북핵문제로 6자회담의 합의가 이행되고 있으며 민족간에는 6·15공동선언 7주년을 기념했다. 햇볕정책 또는 포용정책은 대체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으며 6·15공동선언의 정신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남과 북이란 상대가 있으니 만큼



南載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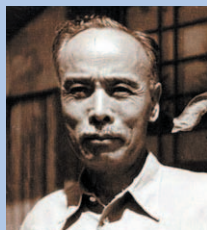
· 본회 자문위원
· 전 서울신문 주필
· 전 노동부장관

우선 외교적 수사(外交的 修辭)로라도 6·15공동선언은 때바들어야한다. 그럴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외교적수사의 속마음으로 우리는 리얼리즘을 가져야한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는 북에 대해 대국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를 가져야한다. 그것이 훌륭했던 몽양의 정신을 이어받는 길이기도 하다. “적어도 말려들 수 있는 대담성이 있어야 통일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작은 이익을 버리고 큰 이익, 민족적 이익을 얻어야 하지 않겠는가?”

몽양이 이와같이 말한 것으로 <역사비평>에 나온 글에서 읽었는데 음미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데 대한 비판도 꼭 염두에 두어서



· 夢陽 呂運亨

夢陽의 '좌우합작' 노선 지금은 '통 큰 포용'으로 그 정신 계승해야

주의할 것은 주의해야만 한다고 본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최근 그가 한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돈도 주고 절도 하는’ 조공식(朝貢式) 남북관계는 대한민국의 존엄성이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인류보편성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제기되어야 합니다.”

또한 뉴 라이트의 이론가 제성호(諸成鎬)교수의 글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6·15공동선언에는 그간 우리정부가 제시하여 온 통일의 3대 원칙 중에서 ‘평화의 원칙’과 ‘민주의 원칙’이 전혀 반영되어있지 않다.”

“6·15공동선언은 없어도 되는데 마치 이 선언 때문에 다양한 남북교류가 가능하게 된 것처럼 국민들

의 눈을 헛갈리게 만든다.”

“‘통일착시 현상을 가져와 충분한 평화공존의 단계를 뛰어넘어 곧바로 낮은 단계 연방단계로 진입, 통일 프로세스를 단축하겠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15공동선언으로 캐치프레이즈가 되다시피한 ‘우리 민족끼리’를 두고는 의견이 확연히 갈라져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 안에서의 미국의 존재와 그 태도의 문제이며 부차적으로는 일본 태도의 문제이다.

뉴 라이트 진영이 빠트린 측면이 그런 점이 아닌가 한다. 간단히 말해 그동안 미국이 북의 숨통을 조여왔고 특히 부시행정부에서는 ‘악의 축’운운하며 북체제의 전복을 염두에 두어왔다 할 것이다. 다만 중동에 있어서와는 달리 특수관계인 이스라엘 같은 게 없어 약간 차이가 나기는 한다. 또한 일본의 아베 정권은 남치문제만 고집하며 대북 적대정책을 노골화하고 있지 않은가.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미국을 비판하고 알맞게 견제하며 북의 숨통을 열어주는 일 일 것이다. 북이 좋아서가 아니다. 평화를 위해서고

민족을 위해서다. 그것이 우리가 북에 대해 대국적이며 포용적인 자세를 보이는 길이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군사적 측면이 가장 중요하며 사실은 그 것부터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이번에 북이 북·미회담을 제기하고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것 등이 그 리얼리즘이다.

몽양은 훌륭한 애국자였다. 우리는 그 몽양정신을 계승하되 그것을 오늘날에 맞게 변용해야 마땅하다. 그것은 ‘합작’이 아니라 ‘통 큰 포용’이라 할 것이다.

당위론이나 명분론의 차원에서 내려와 현실에 발을 딛고 그것을 더 심화시켜야한다. ‘꿈에도 통일’을 외칠 수 만은 없다. 냉정한 현실 논리로 착실한 ‘과정’을 밟아 가야만 하리라 본다.

병자호란 때 일로 이런 말이 전해진다.

今日不可無 崔暉川(최명길) 和戰論

百歲不可無 三學士 主戰論

백범 김구가 남북협상을 위해 북으로 가면서 심산 김창숙 옹에게 그 귀절을 되풀이하며 남북협상에 임하는 심정을 밝혔다고 전해진다.

국제정치나 남북관계를 생각할 때 일도양단(一刀兩斷)하기는 어렵다고 한 그 지혜를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YTN 24 HOUR NEWS CHANNEL
생동하는 세상과 가장 빨리 만나는 방법! 언제 어디서나 한국의 뉴스채널

신문시평

‘신정아 사기극’에 우리도 공범

신정아 학력위조 사건이 국내는 물론 영국 인디펜던트 같은 외국 언론까지 보도할 정도로 요란스럽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고질병의 매우 작은 부분일 뿐이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낯익은 사기극이다.

실력보다는 간판, 내실보다는 외형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며 이를 비호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인맥과 정실이 깊고 넓게 뿌리를 내린 천박한 풍토에서 너무도 당연한 증세가 아닐 수 없다. 제2, 제3의 수많은 신정아가 지금도 어느 분야에선가 활동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 사회는 거기에 아주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왔기 때문이다.

신문도 이 사기극에 휩쓸려 일조했음을 고백하는 기사들이 더러 나온 것처럼 언론 역시 이런 분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어쩌다 미술계에서 터져 나오고 특정 대학이 연관되었지만 어디 그 분야와 그 대학 뿐이겠는가. 우리 모두 너 나 없이 그런 질병을 키우는데 음으로 양으로 기여했고 신정아 사기극은 그 바탕 위에서 필연적으로 끓아터진 것이다.

그 분야 그 대학 뿐인가 언론도 자유롭지 못해 의식정화에 앞장섰으면

이 사회가 진실로 능력 있는 사람을 우대하고, 인사가 공정한 풍토라면 신씨가 굳이 그렇게 위험한 사기극을 벌였겠는가. 그 노력을 실력 양성에 쏟았을 것이다.

이런 유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원인과 과정을 밝히느라 신문들이 노력하지만 근원치료는 멀기만 했다. 언론만으로는 힘겹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번번이 주저앉고 말았는데 이번만은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우리 의식정화에 앞장서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건 신문의 희생적인 노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지만 독자와 국민은 바로 거기에서 희망을 찾을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도 신문에 많은 숙제와 부담을 남겨 주었다. 결과가 나오자 많은 독자들이 우리 신문보도로 보아서는 올림픽 유치를 하고도 남을 것 같았는데 뒤편에 비아냥거렸다. 냉정한 정세분석보다는 성공을 확신하는 기사만 넘쳐났다는 비난이었다.

사실 신문 기사만 보면 이미 모든 것은 완료됐고 발표와 환호만 남은 것 같았다. 그러나 실패했고 그때서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원인분석이 기사의 대세를 이루었다.

독자들은 그런 걸 왜 사전에 몰랐느냐고 항의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정부와 언론계가 고민한 것은 한국이 16강에 올라가지 못할 경우였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때 우리 국민의 열기로 보아 폭동에 가까운 소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일각에서는 내다보았다. 전 세계 이목 앞에서 모든 것이 일본과 대비되는 판국이니 보통 고민이 아니었다. 그래서 비판적인 전망 기사는 가능한 한 자제하는 편이었다. 언론 본연의 자세는 아니었지만 당시로서는 도리가 없었다.

평창 건도 그랬을지 모른다. 잔뜩 희망에 부풀 국민들에게 이러저러한 실패요인도 우리에게 있다고 지적하는 기사를 쓴다면 민족,

◆ 요즘 신문엔...

검증 공방 보도 讀解法



· 한나라당의 이명박(왼쪽) 박근혜 후보.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의 검증 공방과 범여권의 새 판짜기가 한창이다. 우선 한나라당의 검증 공방을 살펴 보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자료유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선행

돼야 한다고 느끼는가. 달리 표현하면 실체적 진실규명이 먼저냐, 적법 절차가 먼저냐 하는 문제이다.

관심 있는 독자라면 신문에 따라 보도 태도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점을 알아차릴 것이다.

그 경우 나의 의견은? (M)

국운을 들먹이며 덤비는 독자들 때문에 기자와 신문사는 엄청난 곤욕을 치렀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국민도 스포츠를 스포츠 자체로 즐기는 층이 점차 두터워지고 있다. 스포츠에 국운과 민족을 연관시키는 좁은 안목에서 차츰 벗어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흐름을 잘 파악해서 실패 가능성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내다보는 성숙함을 신문이 먼저 보여줘야 했다. 2008년 북경올림픽 등 큰 국제경기들이 코앞에 다가왔다. 이제부터라도 것처럼 의연한 자세를 신문이 선도해주어야 할 것이다. [M]



朴 連 浩

· 본회 회우
·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방송시평

문화 업그레이드 지름길 TV

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국민소득이 높아져 물질적으로 풍요롭게되면 의식족이지례(衣食足而知禮)라고 한 성현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예의를 찾게되고 자연스레 문화가 흥성하게 된다. 그런시대를 살다보면 안하던 인사치레도하고 보지않던 문화이벤트도 찾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스런 문화의 업그레이드는 많은 시간을 요한다. 그래서 신흥 성장국가들은 TV를 중심으로 한 전파매체를 동원해 단시간 내의 문화 업그레이드를 시도하고 있다. 왜냐하면 TV야말로 가장 빠른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TV가 문화를 업그레이드시키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

로 현대판 TV캠페인의 한 단면이다. 물론 TV생중계를 의식한 NHK의 기획이다.

현재 스모중계를 보는 일본사람들은 그들이 보는 스모가 바로 옛날스모라고 착각하고 있을 것이다. TV에 의한 몇배의 확대 미화가 이루어졌다고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여년 전 전통씨름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씨름협회를 구성하고 KBS가 주관이 되어 씨름프로를 집중편성하면서 힘차게 씨름부흥의 장정에 나섰다. 그러나 20여년이 흐른 지금 우리의 씨름은 지방 중소도시에서나 하는 변방의 이벤트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씨름이 시작되면서 국민의 호응이 뜨거워지자 이만기와 같은 걸출한 선수들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했고 KBS의 과감한 제작방송이 높은 시청률을 확보함에 따라 씨름의 부흥이 손에 잡히는듯 했다. 그러나 씨름이 된다는 소문이 나자 씨름협회에 모여 든 어중이떠중이들이 헤게모니 쟁탈을 위한 싸움을 하는 통에 씨름의 발전은 뒷전이 되고 말았다.

또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씨름자체

일본은 국민 결속위해 TV가 스모 美化 시켰는데 반짝했던 우리 씨름은?

에 대한 너무나 성급한 개혁이었다. 우리의 씨름이 일본보다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일방적 생각으로 그들의 성공사례를 면밀히 연구하지않고 우리식으로 해야한다는 고집으로 개혁을 단행한것이다. 체급별 장사 선출은 얼핏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동네의 최고 덩치, 옆동네의 황소를 맨손으로 잡은 사람 등이 모이기를 기대하는 민초들에겐 애초에 체급별이란 흥미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일본이 400kg이 넘는 외국선수를 수입하는 것은 그들의 기량 보다는 거구가 자빠질 때 관중이 환호하는 것을 노렸기 때문이다. 또 심판 의상의 절반은 회계, 절반은 붉게해 마치 광대를 연상케 한 것도 졸속의 한 예이다. 비록 야구 축구 등 인기스포츠의 기세가 크다고는 하나 아직도 전통씨름의 부활은 가능하다고 본다. [M]



趙 昌 化

· 본회 회우
· 전 KBS 기초실장

견하게된다. 즉 지금의 국민형편으로는 도저히 실현 할 수없는 것들을 제시하면서 따라 올 것을 독려한다든가 전통문화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그당시로는 불가능한 화려한 색채를 입혀 몇배 더 아름답게 재현시키는 등 이른바 확대미화가 자연스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몇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일본의 스모는 지금 그들의 국가로 간주되어 수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지만 원래는 궁전 뜰에서 행해지던 한 의식의 일환이었다. 그런 보잘 것없는 의식을 천황제를 옹호하기 위한 국민결속의 수단으로 발전시킨 것은 NHK를 중심으로한 보수우익의 꾸준한 노력의 결실이다. 전국 6군데에서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스모장에는 천황을 상징하는 국화문양이 금실로 새겨져 있고 시합이 시작되기 전 국가제창을 하는곳도 바로 이곳이다. 어디 그뿐이라. 선수와 심판이 착용하는 화려한 색상의 의상은 컬러TV 시대에 화면을 의식한 것이며 유명선수들이 등장할 때 장내를 뒤덮는 현상의 깃발은 바

Focus

선거여론조사 과연 믿을 수 있는가?



金龍漢

· 한국마케팅 여론조사협회
초대회장
· 전 AC닐슨코리아 사장

“
설문 방법에 따라 응답에 큰 차이
언론사는 오류 함정 빠지지 않게

”

시카고대학 부설 전국여론조사연구소(NATIONAL PUBLIC OPINION RESEARCH CENTER)에서 고안해 낸 것이 확률표본추출방법이다. 이 방법은 쉽게 말해서 조사 대상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로 선출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확률표본추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95% 신뢰구간에서 $\pm 3\%$ 의 표본 오차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요사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여론조사는 거의 대개가 QUOTA SAMPLE 방법이지 PROBABILITY SAMPLE 방법이 아니다.

그런데도 신문보도에는 엄연히 95% 신뢰구간에서 $\pm 3\%$ 의 표본오차가 있다고 기재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론조사에는 표본추출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설문방법이다. 설문의 순서, 유도질문, 면접자의 기술 등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예컨대 1992년 김영삼씨가 대통령에 당선된지 약 10개월 후에 A조사기관에서 조사한 대통령 지지도는 84%였고 B회사 조사 결과는 51%, C회사의 조사결과 격차는 33%였다. 그 이유는 A회사의 설문지에는 유도질문이 많았다. 즉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부정부패를 타파하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했고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힘쓰고 있는데, 귀하는 김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식으로 물으면 대답은 뻔하다. 이러한 것 말고도 마케팅 및 여론조사에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이러한 것들을 신문사에서는 보도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QUOTA SAMPLING 방법을 사용했다고해서 다 틀리는 것은 아니다. 1997년 대선예측조사에서 한국갤럽이 QUOTA SAMPLE를 가지고 대통령 당선여부를 1% 미만으로 맞힌 것은 한 두번의 조사결과로 한 것이 아니다. 투표날 전 적어도 2개월은 1주일에 몇번씩 조사하여 추세분석과 판별분석(무응답자들의 성향분석)을 통해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신문사의 사명은 ‘진실’을 독자들에게 보도하는데 있고 조사회사 또한 ‘진실’을 밝혀내야한다. 그러한 점에서 언론사, 조사회사, 마케팅여론조사협회 모두 깊이 반성하여 개선할 것은 빨리 개선해야한다.

약 2개월 전 필자는 모 일간지의 1면 톱기사를 읽고 크게 실망했다. 그것은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를 대상으로 모 조사기관에서 ‘이미지’ 조사를 한 결과보도 였는데, 그 조사는 15명의 전문직 종사자를 집단 면접조사하고 5점 척도로 두 후보를 평가한 것이었다.

주요결과는 ‘업무추진력’ 면에서는 이 후보가 약간 앞서있고 ‘표현력·설득력’ 면에서는 박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 있다는 것이다. 15명의 소집단 면접조사를 신문 1면 톱에 보도할만한 값어치가 있는가? 이명박씨와 박근혜씨 지지도 격차는 지난 7~8개월 간 20%, 최근에는 10%정도인데 이 신문기사를 읽은 독자는 이제 두 후보가 막상막하 이구나하는 생각을 할 것이다.

이 조사에서의 문제점은 ① 1개 그룹에 15명을 참여시켰다는 것이다.(보통 6~8명) ② FGI(Focus Group Interview)는 보통 2개 그룹 이상 하여 그룹 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③ 가장 중요한 사회자(MODERATOR)가 누구였는지를 밝히지 아니하였다.

이것과 유사한 여론조사가 최근에 많이 신문보도 된다.

400명씩을 지역별로 안배 해 각 후보자들의 이미지를 전화로 조사한 것이다. 그것이 ARS 방법인지 또는 1대 1(PERSON TO PERSON) 방법인지는 분명치 않다. 그 조사결과는 이명박씨는 소주·막걸리를 즐겨 마시는 서민적 사람이고 박근혜씨는 벤츠를 타고 와인을 즐겨마시는 고급스러운 인상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미지 조사를 전화로 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더욱이 ARS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보통 이미지조사는 FGI 또는 개별 심층면접조사를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 선거여론조사가 싹트기 시작한 것은 1987년 노태우 대통령이 6·29선언을 한 이후였고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것은 1992년 문민정

부가 들어 선 이후부터이다.

역사가 일천하다보니 아직도 방법론상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것은 여론조사의 종주국인 미국도 마찬가지다. GEORGE GALLUP이 여론조사를 개척한 것은 1937년이었는데 1948년까지는 적지 않은 오류를 범했다. 예컨대 GALLUP 여론조사는 1948년 TRUMAN과 DEWEY와의 대통령선거 예측에서 크게 빗나갔다. 그 원인은 그때까지만 해도 확률표본추출(PROBABILITY SAMPLING)을 안했

고 인구비례 할당추출(QUOTA SAMPLING)을 했기 때문이었다. 2차대전 이후(1945) 미국 남부지역에서 많은 농민들이 북부도시지역으로 이동했는데 갤럽의 QUOTA SAMPLE은 1940년 센서스(CENSUS)에 기초했다. TRUMAN의 지지기반은 남부에 있었고 그 많은 유권자들이 북부도시로 이동해 인구비례로 북부가 TRUMAN에게 유리했다. 따라서 대통령선거 결과 TRUMAN이 압승했다.

이러한 현상을 깨닫고 1949년 미국

김용한 씨가 원하는 여론조사 재미있게 읽는법

●오차범위와 신뢰구간 = 조사 대상자의 수, 즉 표본의 크기에 따라 실제 결과가 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는 ‘오차 범위(표본 오차)’가 결정된다. 무작위 추출 조사의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오차는 조사 대상자 수가 1500명이면 $\pm 2.5\%$ 가 되고 1000명이면 $\pm 3.1\%$, 2000명이면 $\pm 2.2\%$ 가 된다. 95% 신뢰구간에서 오차범위가 $\pm 2.5\%$ 라는 말은 같은 시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100번 조사했을 때 95번 $\pm 2.5\%$ 의 오차범위 안에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대통령 후보 A와 B의 지지율이 각각 35%와 32.5%가 나왔다면,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누가 앞서는지 알 수 없다. A는 32.5~37.5%, B는 30~35%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비표본 오차 = 실제 여론조사에는 통계적으로 계산 가능한 표본오차 외에 비표본오차라는 것이 있다. 이는 질문순서나 내용, 조사원의 조사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다. 비표본오차는 조사기관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여론조사는 가로가 아닌 세로로



읽어야 = 여러 조사기관이 같은 시점에 후보 지지율을 발표한 경우 수치를 단순히 비교하기보다는 한 기관이 조사한 결과를 순차적으로 훑어내려가는 것이 여론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조사기관마다 조사 기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수치를 비교하기보다는 조사기관별로 전체적인 트렌드(경향)를 살펴야 한다.

●무응답률이 중요하다 = 선거 여론조사를 볼 때 중요한 것이



이 대답을 안하는 ‘무응답률’. 질문을 하는 방식과 추가 질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 몇번 하느냐에 따라 무응답률은 달라진다. 무응답률이 높으면 대답하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고, 전체적으로 지지율도 낮게 나온다. 선거 여론조사의 경우 대세론이니 노풍, 정풍이니 하면서 이슈가 되는 사안이 있을 때 무응답률이 줄고 그 때의 이슈가 되는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진다.



재미마당

一笑一少

一怒一老

어떤 남자가 술에 취해 걷다가, 휴탕물에 쓰러져 자고 있었다.

그 앞을 지나던 아줌마 세 명,
누구 집 아저씨인지 휴탕물에 범벅이 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

울 신랑이 아니네!

혹시나 내 신랑인가 싶어
첫 번째 아줌마가 남자의 지퍼를 내려 빠
끔히 거시기를 쳐다보며,
“어, 울 신랑은 아니네.”
그러자 옆에 있던 또 한 아줌마. 지퍼 속

의 거시기를 쳐다보고 하는 말,

“맞아. 니 신랑은 아니네.”

그러더니 그 옆에 있던 마지막 아줌마, 지퍼 속의 거시기를 쳐다보더니 하는 말,
“울 동네 남자는 아니네 그러.”



최영정

언론계의 골프 뿌리들



· 필자 : 본회회우 · 골프 칼럼니스트 · 전 조선일보 체육부장

(下) 매스컴회 일반기자도 합세

뉴 페이스 입회로 대형화

언론계 잠재 골프뿌리들에 선망의 대상인 매스컴골프회를 후원해준 고마운 특별회원의 면면과 숨씨를 알아본다.

경기참가상과 시상품 등의 협찬으로 기업체 사장·임원 등 특별회원들은 음양으로 매스컴회를 도와 골프를 통한 우호적인 유대관계를 굳혀 나갈 수 있었다.

핸디캡에서 장익룡(張翼龍·진로) 10 고완식(高完植·해대) 김정천(金政天·동산유지) 손정삼(孫貞杉·동아제약) 이종근(李鍾根·종근당) 김구환(金龜煥·한독약품) 등 12~20, 프로골프경기 첫 스폰서의 강신호(姜信浩·동아제약), 원손잡이 골퍼 정세영(鄭世永·현대 자) 신동관(申東寬·태평양화) 등 친(親) 매스컴회 사장 등은 20여명 내외였다. 이렇게 특별회원들은 아버리지 골퍼의 수준으로 매스컴회 정회원들 보다 높은 숨씨로 라운드를 즐겼던 것이다.

오산(현 한원)CC에서의 일이다. 인의 파4홀에서 필자의 타샷이 너무 날아 막 제2타를 치고 걸어 나가는 앞조 신동관 사장의 두상에 낙하, '퍽!' 소리까지 들려왔다. "이크, 큰 일 났다!" 급히 달려가서 엎드린 신 사장의 머리를 체크했더니 볼에 맞은 두상이 조금 붉게 부어 오르고 있지 않는가. 다행히 신 사장이 "괜찮아요"하며 일어났다. 그는 그날 18홀을 완주하고 4위 입상까지 했다.

70년대 말 동아 김광희(金光熙·편집부국장·전 체육부장)가 박창래(朴昌來·논설위원) 조광식(趙光植·체육부장)과 함께 매스컴회에 가입했다. 한국경제 이규행(李揆行·사장)이 매일경제 나병하(사장)에 이어 두 번째 매스컴회 '발행인 회원'으로 랭크업 되었던 때이다.

서울대 신문대학원 김규환(金圭煥)원장, 중앙 손주환(孫柱煥·외신부장), 노진호(盧鎭鎬·편집부국장)가 가입하고 한국 지동욱이 빠진 자리를 이성표(경제부장), 김진걸(金鎭杰·체육부장)이 보강하였다. 또 조선 김용원의 경제계 진출, 필자의 신문협회 진출 등으로 생긴 공석은 최병렬(崔秉烈·편집국장), 장지원(張志源·체육부장), 김태호(金泰昊·경리부장)로 채워졌다. 서울의 경우 김진규(金鎭圭·기획위원)와 최신호(崔信鎬·사회부장)로, 매일경제는 김재봉이 물러나고 김재원(金在源·판매국장) 김복진(金福鎭·사업국장) 및 백인호(白仁鎬·편집부국장)가, 그리고 양대 통신 합동·동양 등이 합병된 연합통신은 홍일해(사장) 이하 유승범(상무) 이종식(李鍾植·상무) 송용식(宋庸植·편집국장) 김영일(金榮一·지방부장) 정극주(鄭極珠·업무국장) 박용민(朴容政·사회부장)으로 막강진용



▲ 매스컴회의 기념촬영 : 앞줄 고광탁, 윤임술, 이규행, 나병하, 뒷줄에 홍진태, 송두빈, 필자, 임택근. 나머지는 특별회원의 얼굴들.



· 정광모 : 신문기자 출신 유일의 내셔널타이를 홀더.



· 매스컴 최고 고수 김용원(조선).



· TV방송사 골프장 소유의 골프협회 윤세영 회장.

‘언론·골프’ 유착 우려남아 봄 번져 언론사마다 모임 생기고 회원이동 늘어 ‘12년 역정’ 종지부

을 기다듬었다. 회원 70명대에 들어 서는 대형 골프모임으로 발전되었다.

문화방송에 변혁이 있어 임택근, 우윤근이 빠지고 그대신 뉴페이스 김성훈(金成訓·감사) 강성구(姜成求·보도부국장) 및 김용균(金容均·〃)이 나왔다.

골프장 사장에 오너까지

신문에 비하여 방송계 골프인구는 적은편이어서 한국방송(KBS)에서는 박종세(방송주간) 만이 매스컴회에 나옴으로써 문화방송(MBC)의 골프붐(?)과 대비되었다.

1980년 초 회장은 홍일해(YTN), 부회장은 필자(신문협회 사무국장)가 맡게되고 나병하(매경) 사장은 고문에 추대되었는데 사실은 매스컴회 청산용 집행부였다.

이때부터 매스컴회는 쇠퇴하기 시작한다. 각 언론사마다 골프뿌리들의 수가 늘어났고 각 사(社)별로 뭉치게 되면서부터이다.

매스컴회가 아니어도 각사별 골프모임에 참가해 더 알뜰한 라운드를 즐길수 있게 되면서 매스컴회의 효용이 다 한 것이다.

거기에 각 언론사마다의 인사이동, 정년 등에 의한 진출, 은퇴 등이 잦으면서 매스컴회 해체는 가속화된다. 10년이면 변하는 것은 강산(江山) 만이 결코 아니다.

드디어 1981년 10월 제99회 경기(로얄CC)에서 우승 김광희(동아) 준우승 김진규(서울) 메달리스트

이효섭(서울) 니어핀 홍일해 감투 유건호(조선) 등 9명의 입상자를 가려낸 후 12년에 걸친 매스컴회의 역정에 종지부를 찍고 해산한다. 바로 26년 전의 일이다.

매스컴회 출신 '고수' 골프뿌리기 하면 누구일까. 조선 김용원, 문화방송 우윤근, 가임이 늦었던 한국경제 이종만(李鍾萬), 매일경제 나병하, 동양통신 김로석 등으로 손꼽힌다. 매스컴회 회원이 아닌 명 여기자 골프뿌리기로 한국 정광모(鄭光謨) 논설위원이 있다. 단연 군계일학의 존재로서 이화여대 육상선수 출신인 그녀는 30대 중반 골프를 시작하더니 삼시간에 싱글급 숨씨로 속달, 1982년, 1984년 한국여자 아마추어 선수권 대회에서 2승을 한 후 곧 '경기'골프에서 은퇴했다. 그녀는 남녀 신문기자를 통틀어 오직 1명 뿐인 내셔널골프타이를 홀더이다.

기자협회회장에서 국회에까지 진출한 경향 이금규(李肯珪)부장은 볼초 소생에게서 골프초보를 익히더니 마침내 전 국회의원 중 1~2위의 고수를 자랑한 싱글 핸디캡 플레이어다.

매스컴회의 중추적 위치를 지켜온 매일경제 나병하 사장이 오늘의 매일경제 핵심사업인 매경오픈골프대회를 창설하여 명경기로 성장케 한 그 공은 지대하다.

본 매스컴회 출신 중 이근수(한경), 김태운(매경), 박용민을 비롯, 그밖에 김성립(경향) 김철(조선)이

정배(중앙)는 골프장 고용사장까지 지냈다. 체육기자(한국) 출신으로 골프장(9홀) 소유자 이관식(李官植)은 여자프로협회(LPGA) 회장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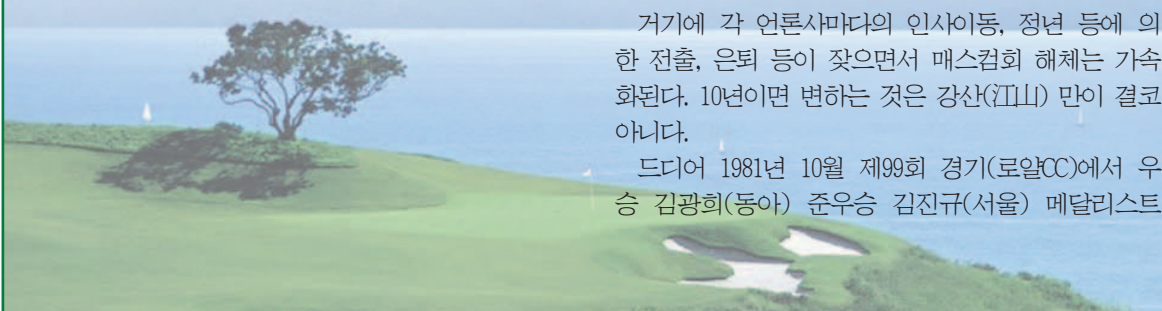
골프로 펜이 둔해지는 일 없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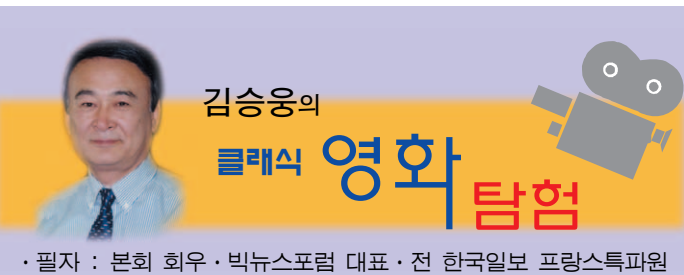
SBS회장에 골프장을 소유하고 오픈경기를 스폰서하는 윤세영(尹世榮) 골프협회(KGA) 회장이야말로 진짜 골프뿌리기로 칭 만하다.

전국 골프장업주의 단체인 골프장경영협회(KGBA)가 1977년 이래 언론사 사장, 편집국장, 체육부장, 담당기자 등에게 회원대우 요금할인의 특혜를 주는 터에 일반 기자들까지 골프를 하게 된 언론계골프 붐에서 자칫 언론과 골프장업계와의 한통속 화(化) 즉 '언·골 유착'을 낳지나 않을까... '접대골프' 만큼 멋진 접대는 아직 고안되지 않았다고 한다. 골프계와 골프장들이 아파하는 폭로성 기사들이 많이 줄어 든 요즘이다. 1980년대 사원에게 골프를 권장하던 삼성이 목하 골프금지 중에 있고 공직자 사회도 사실상 골프금지속에 있다. 왜 그럴까? 스스로는 골프행태에 자유로우면서 남의 골프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언론, 한손에 불을 치는 골프클럽을 쥐고 있는 한 다른 손에 든 골프를 비판도 하는 펜이 둔해지는 일이 없어야 할 터인데...

그리고 기업체 사장들은 사원에게 립서비스로 골프를 권장하고 그 후 막상 부하 중 자신을 능가하는 싱글급이 나오면 그를 경원하고 견제하게 됨을 알아야 한다.

언론사의 사장들도 그 예외가 아니다.☞





김승웅의

클래식 영화 탐험

③

• 페데리코 펠리니의

길 La Strada



• 감독 펠리니가 狂畫師처럼 미쳐 그려낸 영화 '길' 포스터.

화는 마지막이 슬프다. 슬픔을 넘어선 처절한 몸부림이다. 주인공 잠파노가 백사장을 뒹굴며 절규하는 마대목은 보는 이에게 연민 이상의 부담을 준다.

다 병들면 착해 지는가. 당신은 혹시 주위의 악인들 시달림을 받은 적이 있는가?

통을 당해 본 사람들에게 영화는 다음과 같은 자문을 준다. “악인이 막판에 앓는 병명(病名)은 무엇일까?” 들어진지 올해로 52년째 되는 이 고물 영화 <길>에 오르다보면 대학시절 언뜻 읽었을 법한 한 생철학 저서 <죽음에 이르는 병>을 떠올리게 된다.

공 잠파노가 앓는 병이 고독이라는 것, 이 고독을 그는 죽음에 이르며, 거기서 마침내 영적으로 소생는 몇가지 계단식 전제를 파악해야만 영화 탐험이 순다.

과 <길>에 매달려온 많은 영화 비평가들은 극중에 나오는 3명의 주인공을 선(또는 천사의 이미지), 악마(또는 악간의 수성), 그리고 그 사이에 낀 인간(또는 무후한) 이렇게 세가지 상(像)으로 유형류 한다.

단 역(役)은 젤소미나가 맡는다. 이 곡에서 잠파노에게 1만리라에 젤소미나는 낮에는 보조 곡에서에는 그의 섹스 도구로 이용당한다, 산다는 것이 뭔지, 뭇 때문에 지에 눈을 뜨게 된다. 그리고 죽 영화 <길>은 그녀가 이 같은 대(大)에 이르는 길이다.

소미나를 길로 인도하는 일 마토(神)의 역을 무난히 마치고 잠의 손에 죽는다. 살아남는 것은는 뿐이되, 그 역시 예전의 잠파아닌, 죽어 거듭 태어나는 새로파노다.

소미나에 대한 연민으로 백사장을 삼키는 잠파노의 고독은 그에(重)을 가져오는 묘약(妙)다.

속에서 이미 죽은 젤소미나와 토가 실제 죽지 않았다는 것을, 고 이처럼 잠파노의 회개를 통해했다는 것을 관객들은 영화관을여야 깨닫게 된다.

화 <길>은 어찌 보면 감독 페데리코 펠리니의 자전적(自傳的)의 작품이다.

첫 살 때부터 수녀들에게 교육을 성장한 펠리니는 청소년 시절 한때 집을 나와 유랑스단을 따라 이탈리아 전역을 돈다. 유랑시절 그가 체고 느낀 감정의 편린들이 이 영화의 구석구석에 깃들어 들어있다.

다금 등장하는 수녀들과의 조우 장면이나 젤소미나을 통해 자주 반복되는 ‘바다와 꽃, 햇빛...’은 성자(聖) 프란시스코를 닮고자했던 펠리니 감독의 신앙고백이다.

혼사(婚事)집에 들른 잠파노가 주방 과부와 눈이정을 통하는 장면, 그 대가로 과부의 옛 남편 옷을 구해 입고 희색이 만연해지는 장면은 펠리니 자신의 경험에서 온 것이다. 남편(잠파노는 젤소미나에겐 어 남편이다)의 불륜을 전혀 모른 채 젤소미나는 혼사집을 구석구석 구경하고 안방 깊숙한 침대에 누운 머리

년 환자를 만난다. 환자의 등장은 영화 스토리의 기승전결과는 전혀한 장면이나, 펠리니는 굳이 이 장면을 영화속에 삽입 유랑시절 자신의 뇌리에 깊이 박혔던 장면을 고집한

것으로 보이나 스토리와는 무관한 이 장면이 대단한 극중효과를 발하고 있어 놀랍다.

영화 <길>에는 이렇다 할 무대 배경이 없다. 있다면 영화의 제명(題名) 그대로 <길> 만이 반복돼 나타날 뿐이다.

이 길은 이탈리아 전역의 길로 잠파노와 젤소미나를 태운 삼륜 오토바이(美製라고 잠파노가 그토록 으스대던!)가 달리던 먼지투성이의 신작로 길, 이따금 잔설(殘雪)이 녹아있거나 울창한 수목으로 하늘을 가리던 길, 그리고 지금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이탈리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추억 속의 옛 길일 뿐이다.

영국 파이어든 프레스 사(社)에서 출간한 영화사전(卷1)은 이 영화의 로케 현장으로 ‘비테르보, 오빈도리, 바노레지오 읍(邑)과 이탈리아 중남부의 수많은 촌락들’을 열거하고 있다.

영화의 무대는 이 많은 촌락 중의 한 길이려니, 극중의 장면과 흡사한 길을 만나 셔터만 누르면 되려니 싶어 지도



• 이 영화 한편으로 두명의 스타가 탄생한다. 바로 잠파노역의 앤서니 퀴와 젤소미나역의 줄리에타 마시나이다. “젤소미나, 젤소미나...”로 반복되는 니노 로타의 주제곡과 함께 기억이 새롭다.

투명한 눈동자를 지닌 젤소미나와

그 구슬픈 트럼펫 소리

그리고 짐승같은 곡예사 잠파노

서글픈 떠돌이 삶이 펼쳐졌던 그 길은...

한장 만을 달랑 들고 길을 나선 것이 실책이었다.

허탕치기를 사할째.

로마시 북단(北端)의 바노레지오 읍(邑)을 마지막으로 통과할 무렵 이상한 예감이 들어 300~400m 높이의 산중마을을 찾아 간다. 그곳에 치비타(Civita)라는 고원(高原)마을이 서 있다. 차를내려 구름다리를 오르니 거기, 영화속의 혼사집이 그대로 살아있다.

빠어난 예술작품은 감상자에게 영험(靈驗)한 예감을 주는가.

혼사집 뿐 만이 아니다. 잠파노의 악행에 쫓긴 젤소미나가 혼자서 방황하던 만추(晩秋)의 성당 앞 광장, 일 마토가 줄타기 곡예를 벌이던 망루(望樓), 또 교회행사의 축제행렬로 법석대던 돌담집 골목들이 차례대로 반겨준다.

마을 한 가운데 산토나도 성당이 자리잡고 그 안에는 산토 프란토 주교(主教)가 280년 된 미미라가 되어 누워 있는데, 서울 시청 앞 광장만한 고원마을에는 7개의 서로 다른 성(姓)을 지닌 주민 15만명이 살고 있다.

폐허로 바뀐 마을 곳곳엔 이름모를 빨간 꽃들이 다뤄 피

어있다.

그 꽃그늘 사이로 수십마리의 흰 고양이들이 지나갔다. 법석대던 혼사집은 인적이 끊긴지 오래이고, 영화 속의 머리 큰 소년환자가 누워있던 방에는 녹슨 빗장이 걸려있다. 그 소년환자는 그 후 어찌 됐을까.

<길>은 감독 펠리니가 유랑시절의 체험과 종교를 토대로, 흡사 광화사(狂畫師)처럼 전율하며 그려낸 무서운 작품이다. 영화사(史)의 한 이포크를 이룬 이 작품은 제작 당시의 기존 이탈리아영화에 대한 ‘배신’을 첫 특징으로 한다.

펠리니는 대전(大戰) 이후 유럽 영화계를 석권해온 ‘네오리얼리즘’에 대해 이 한편의 영화로써 결별을 고한다. 로마 가톨릭 교회측은 ‘사랑과 자선, 구원과 은총의 대 서사시’라고 이 영화를 격찬했다. 이탈리아 정계의 좌파(左派)들은 펠리니의 ‘배신’을 매도, 이 영화의 해외수출을 전면 금지시켰다. 잠파노를 통해 이탈리아 보통사람의 비(非)도덕성이 의도적으로 과대묘사 됐다는 것이 수출금지의 주된 이유였다.

대신 이 영화 한편으로 두 명의 스타가 탄생한다.

잠파노 역의 앤서니 퀴는 그때까지도 조연급에 불과했다. 아일랜드와 멕시코계의 부모사이에 태어난 퀴이 이 영화에 픽업되기까지 맡았던 배역은 마상(馬上)에서 총 맞고 굴러 떨어지는 인디언 역이 고작이었다. 이 영화 한편으로 그는 세계적인 유명인(著名人)으로 알려진(알려진)가 된다.

젤소미나 역(役)의 줄리에타 마시나는 감독 펠리니의 부인이다. 로마 대학의 동기동창인 부부는 재학시절 펠리니가 쓴 방송극에 마시나가 출연하면서 친해졌고 졸업(1943년)과 동시에 결혼했다. 영화 <길>은 부부가 결혼한 지 10년 만의 작품으로, 둘

다 34세 때다.

“잠파노를 보시라!”를 외치면 나팔과 북을 울리는 마시나의 가련 상(像)은 “젤소미나, 젤소미나...”로 반복되는 니노 로타의 주제곡, 그리고 그녀 특유의 약간은 코믹한 마스크로 인해 영화의 비애와 통한(痛恨)을 역설적으로 배가시킨다.

그녀를 무성영화시대의 거성(巨星) 찰스 채플린과 비교하는 영화비평가들의 견해에는 지나침이 없다.

펠리니는 자신이 직접 쓴 시나리오와 배역(配役)을 들고 제작자 디노 데 라우렌티스를 찾는다. 제작자 디노는 이 영화의 비(非) 상업성을 이유로 출자를 기피하면서 굳이 영화를 만들겠다면 잠파노 역에 미국배우 버트 랭커스터를, 젤소미나 역에 자기의 아내 실바나 망가노를 기용하라는 조건으로 타협안을 낸다.

그러나 펠리니의 고집이 끝내 이겼고, 때마침 영화 <침략자>(1935년)의 로케를 위해 이탈리아에 와 있던 앤서니 퀴를 매수(?)해서 이 영화가 만들어진다. 명화(名畫) 한편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길>도 간단할 수는 없다.

Care For You

 **중외제약**

첫째도 둘째도 생명입니다

중외제약이 만들어가는 내일은
 생명을 더 존중하는 내일입니다.
 사람을 위해 약이 있고
 생명을 위해 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외제약은 글로벌헬스케어 기업이 되기 위해
 먼저 생명을 가장 존중하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Global HealthCare Company - 중외제약



미

- 중외제약은 수액제를 비롯한 필수약품 개발로 국민건강을 선도합니다.
- 중외제약은 글로벌 기준의 R&D기술력으로 획기적인 신약을 창제하고 있습니다.
- 중외제약은 감기약 화콜, 빈혈약 웨럼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 중외제약은 홀트장애인합창단 '영혼의 소리'와 '찾아가는 음악회' 후원 등 문화나눔을 실천합니다.
- 중외제약은 건강과 관련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글로벌헬스케어컴퍼니를 지향합니다.

방송기자의 월남전 종군

(下)

#고 이인호 소령 ‘해병의 영웅’으로

필자가 사이공의 숙소 몬디알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즈음, 청룡부대 정훈참모 박대위로부터 전화가 왔다.

주요한 용무로 만나서 의논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호텔로 오게해서 만난결과 청룡부대 2대대에서 작전 중 한 장교가 장렬히 순직한 전투가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곧바로 정훈참모의 안내로 베트남 출몰 90% 이상 지역인 2대대 주둔지로 향했다.

이지역은 워낙 베트남의 공격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탑승한 지프가 부대를 향해 진입할때 차량 주변에 지그재그로 포탄을 쏘아 엄호를 해줄 정도였다.

부대에 도착, 작전장교와 전투에 참전했던 병사들과의 인터뷰에서 이 부대 정보장교 이인호 대위의 장렬한 전사를 알게됐다.

이인호 대위는 병사들과 함께 베트남 동굴을 수색하러 전진하던 중 앞에서 베트남이 던진 수류탄을 자신의 몸으로 덮쳐 산화함으로써 병사들의 희생을 막고 자신은 순직했던 것이다.

필자는 이인호 대위의 순직과정을 소상히 취재한



▲ 월남전서 장렬히 전사한 이인호 대위의 군인정신을 기려 해군사관학교에 동상이 세워졌다.

盧永台

- 본회 회우
- 전 KBS 월남특파원
- 전 주일본대사관 공보관



전부터 이곳에 주둔해온 미해병 상륙사단 장병들은 베트남의 끈질긴 공격에 시달려오다 청룡부대의 이지역 진주에 크게 고무된 나머지 도로 양옆에 두 줄로 10km를 도열해 청룡부대 장병들을 환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 미군해병 병사는 본국의 고향부모에게 보낸 편지에서 “부모님! 이젠 안심하십시오. 귀신도 잡는다는 한국의 해병, 청룡부대가 우리부대 옆으로 진주해왔으니 우리의 안전은 완전히 보장된 셈입니다”는 사연을 보냈다는 것이다.

#고엽제 후유증에 시달려

월남전 참전 장병들 가운데 고엽제 후유증으로 무척 고생하고 있는 전우들이 있어 안타까운 일이 되고 있다.

월남 정글에서 베트남과 월맹군의 은폐물이 되는 울창한 숲을 없애기 위해 고엽제를 한없이 뿌렸는데 고엽제가 뿌려진 정글과 논, 밭 등지에서 작전, 매복 등으로 활동한 나머지 뒤늦게 고엽제 후유증이 몸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고엽제 후유증은 그 피해상황이 너무나 비참한 실정이며, 심지어 환자의 후세(자

“한국해병 왔으니 안심” 미군 장병들 환호

60분품 2회분 방송테이프를 서울로 보내 특파원수첩 특집방송을 하게 했다.

서울중앙방송국 방송을 통해 이인호 대위의 살신성인 산화소식을 접한 각 신문사는 월남 현지의 자사 특파원들에게 취재 지시를 함으로써 각사가 일제히 이인호 대위의 숭고하고 장렬한 군인정신을 보도함으로써 군당국이 그 전공을 인정하는 가운데 해군·해병의 영웅 고 이인호 소령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필자는 지난 1996년 여름, 한국방송협회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재직당시 협회 임원 일행과 함께 포항 해병상륙사단 장병을 위문하는 기회에 마침 이부대에 근무 중인 고 이인호 소령의 장남 이 대위를 만날 수 있었으며 함께 고 이인호 소령의 전공에 관해 얘기를 주고 받았는데 부자기간이 한결같이 늠름한 장교였음을 실감한 바 있었다.

#청룡부대의 추라이 이동작전

주월 청룡부대는 그 용감무쌍함과 전투력이 우수함에 따라 베트남 밀집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부대를 주둔해왔다.

월남 중부지역 투이호아에 주둔하던 청룡부대가 북부 베트남 밀집지역인 추라이로 이동했다.

필자는 투이호아 해변의 청룡부대 정훈참모 박대위의 개인테이프에서 박대위와 담소하면서 투이호아의 마지막 밤을 지낸 후 익일새벽에 헬리콥터편으로 추라이로 향했다.

추라이 새 주둔지 상공에 이르자 여기저기서 베트남이 쏘아대는 대공포 총소리가 진동했다.

부대에 도착하자 청룡부대 군악대 캄보밴드가 연주하는 속에 이곳에 전부터 주둔해온 미해병대 상륙사단 장병들과 새로 도착한 청룡부대 장병들이 서로 어울려 정답게 여흥을 즐기고 있었다.

녀)에까지 유전, 전염되어 그야말로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정부가 늦게나마 이들에게 보상의 길을 열어 어느정도 예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피해에 비해 부족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 하겠다.

필자 역시 주월군의 전투작전, 매복작전 등에 종군한 결과로 고엽제의 후유증인 뇌경색,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보훈병원의 치료를 오랫동안 계속하고 있는 형편에 있다.

주월 맹호사단, 백마사단, 청룡부대, 비둘기부대, 십자성부대, 백구부대, 공군 등 수많은 부대에서 근무한 장병들의 전공에 존경심을 표하고 순직한 장병들의 영령에 명복을 빌며 고엽제로 신음하고 있는 장병들의 빠른회복을 기원하면서 필자의 월남전 종군 회상기를 끝내고자 한다. [圖]

모두모두 행복해지는
馬법의 성

친구에게, 연인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한여름밤 짜릿한 감동을 선물하세요!
서울경마공원에 오시면 모두모두 행복해집니다.

**빛 음악극장 즐거움이 가득한
2007 야간경마축제**

일시 7. 14(토) ~ 8. 12(일) 토·일요일 장소 KRA서울경마공원

1 화려한 빛의 축제-루미나리에 은하수 조형의 반딧불 터널, 불나리를 연상케하는 초대형 루미나리에 설치로 황홀하고 아름다운 빛의 축제가 펼쳐집니다.

2 감성적인 라이브 축제 7080 통기타 및 팝, Jazz 등 즉석에서 펼쳐지는 라이브공연에 꼭 빠져보세요. 화려한 장미꽃이레 시원한 맥주와 함께 로맨틱한 한여름밤을 즐겨보세요

3 짜릿한 체험의 축제 대형에어 미끄럼틀, 아이스쿨존 등 다양하고 즐거운 놀이시설은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부산경남경마공원과 제주경마공원도 동기간중 야간경마를 시행합니다

문의_ 콜센터 1566-3333 홈페이지 www.kra.co.kr



박정진 시 집 <독도>

박정진 지음

중견시인 박정진 회우가 최근 그의 여섯번째 시집으로 '독도'를 펴냈다. 초대 독도박물관장 고(故) 이종학(李鍾學) 선생의 5주기를 맞아 헌정시집으로 펴낸 이번 시집에는 '독도' 시리즈 14편과 '신선' 시리즈 20편 등 모두 120여편이 실려있다.

제1부 '독도에서 신선되다', 제2부 '아름다운 인연'으로 나뉜 이번 시집에는 특히 2부에서 '백남준의 천재를 위하여', '고암이응노를 찬양하며'



화를 보여주고 있다. 박 시인은 문화인류학자, 언론인, 문화평론가, 저술가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번 시집까지 총 69권의 저서를 낸 다산(多産) 작가이다.

이번 시집의 주제가인 '독도'는 일본의 영토 주장에 대증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반일감정 만을 부추기는 여타 다른 시와 달리 인격적 승화를 은유하면서 독도를 노래하고 있어 시 낭송자들 사이에 널리

독도를 불교 蓮花藏의 세계로 승화

등 작고 미술가와 대중가수인 '비' '보아' '윤사마' 등 대중예술가들에 대한 발랄한 시도 곁들이고 있어 흥미롭다. 또 최근 히말라야 16좌 등정에 성공한 산악인 엄홍길을 노래한 '산이 되어 돌아왔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취임을 축하한 '속세의 교황', 제3세계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한비아를 노래한 '바람의 딸' 등도 눈길을 끈다.

'현대시'(92년)를 통해 등단한 박 시인은 이밖에도 현실을 풍자하고 있는 여러편을 내놓고 있다. 정신대로 끌려간 여인의 아픔을 노래한 '검은 신(神)', 시단의 모순을 꼬집은 '정지꾼 시인' '우리시대의 시인' 등도 곁들이고 있어 2004년 펴낸 시집 '청계천' 이후 3년 간의 변

태를 보여주고 있다. 박 시인은 문화인류학자, 언론인, 문화평론가, 저술가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번 시집까지 총 69권의 저서를 낸 다산(多産) 작가이다. 이번 시집의 주제가인 '독도'는 일본의 영토 주장에 대증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반일감정 만을 부추기는 여타 다른 시와 달리 인격적 승화를 은유하면서 독도를 노래하고 있어 시 낭송자들 사이에 널리

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시집의 앞뒤 표지로는 독도 문화의병 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랑 이종상 화백의 '독도-氣 2'와 '독도일출'이 장식하고 있고, 본문에는 독도 사진작가 김종권씨의 사진이 곁들여져 시집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다.

역사인물 소설집 <나를 여왕이라 부르라>

황원갑 지음

우리 역사에 선명한 자취를 남기고 사라진 여걸 12명의 일대기를 1인칭 독백체 형식으로 기술한 독특한 역사인물소설집이 나왔다. 중견소설가이며 역사연구가인 황원갑(黃源甲)회우의 신작 소설집 <나를 여왕이라 부르라>가 그 책이다.

이 소설집에서는 우리 역사의 고비마다 커다란 자취를 남기고 역사의 무대를 유유히 가로질러 간 12명의 '여왕'이 등장한다. <삼국사기>에는 세

의 과란만장한 일대기를 1인칭 독백체 회고록 형식으로 기술한 것이다.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이 12명 여왕의 독백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지난 한해 동안 나는 기꺼이 신내린 사내가 되어 박수(남자무당) 노릇을 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입을 통해 이 12명의 여왕은 사랑과 질투, 배신과 음모, 야망과 좌절, 쾌락과 죽음으로 점점이 얼룩진 자신의 일생을 울울이



신내린 사내가 대필한 女王들 회고록

명의 여왕이 나온다. 선덕여왕, 진덕여왕, 진성여왕 등 모두 신라의 여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에 '여왕'이 과연 이 세명 밖에 없었을 까. 비록 역사책에는 여왕으로 나오지 않고, 옥좌에 앉아 '진짜 여왕' 노릇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 역사에는 여왕보다 더 막강한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실질적 여왕', 여왕대접을 받고도 남을 만한 여걸이 많았다.

그 가운데서 진짜 여왕에 못지않게 비상한 일생을 살았던 여걸 12명의 일대기를 1인칭 독백체 소설집으로 엮은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작가는 이 소설집을 통해 그의 소설쓰기 작업에서 새로운 형식을 시도했다고 밝힌다. 그것은 이 여왕들

풀어 내렸다. 애절하고 구슬픈 사연도 있고, 사납고 모진 일도 있다. 때로는 통쾌하기도 하고, 감칠맛 나는 장면도 있다. 또 때로는 비참하고 잔혹한 사건도 나온다.

어쨌든, 여성의 지위가 옛날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게 많이 바뀌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여성 국무총리에 이어 여성 대통령이 나올지도 모르는 시대가 되었다.

이 소설집은 지난 수천년 간 남성 중심으로 이어져 온 우리나라 여성 암흑기에도 그 어떤 남성 못지않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여걸, 훌륭한 일생을 보낸 여인, 독특하거나 멋진 종류의 한 삶을 살다 간 여인들의 파란만장한 자취를 일인칭 역사인물소설로 되살려 본 것이다.

<유익한 골프용어 정답>

골프에서 'Tiger(호랑이)'는 핸디캡이 한자릿수인 강한 플레이어이고, 'Rabbit(토끼)'이나 'Hacker(컴퓨터 불법 진입자)'는 풋내기 솜씨의 골퍼를 일컫는 '은어'이다.

"Taxi(택시)"는 제때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볼, "Titanic(강력한)"은 볼을 물에 넣고도 파를 잡는 행운, 'Snowman(눈사람)' 하면 두 눈사람의 모습에서 88타의 스코어, 'Stand please(서 주세요)'는 '조용히 하세요'의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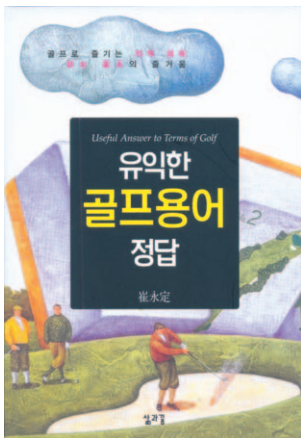
국내 골프기자 '1호'로 일컬어지는 골프칼럼니스트 최영정씨가 '유익한 골프용어 정답'을 펴냈다.

저자는 '하는 골프' '보는 골프'에 못지않게 '읽는 골프'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고 밝힌다.

이 책은 골프규칙집에 나와 있는 공식 용어뿐 아니라 술어 관용어 유머까지 총 1000여개 어구를 정리했고 70여개 해설과 칼럼을 곁들였다.

영어 알파벳 순으로 돼 있어 해외진출을 꿈꾸는 골프선수, 골프의 어원을 정확히 알고자 하는 골퍼 마니아, 해외주재 골퍼들에게 골프용어 길라잡이로도 유용하다.

이 책은 단순한 골프용어의 해설만이 아니다. 지적(知的) 활동에 종사하는 지식과 학문을 갖춘



최영정 지음

현대 골퍼에게 골프 영어를 보다 많이, 정확히 익히고 연구하는 일은 본인에게 매우 유익하다.

세계 공통의 Rule of Golf에는 겨우 50여개의 용어가 등장하여 Rule(룰) 활용을 위한 기준 개념의 정의(定義)로 준용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 책에는 1000여개의 용어와 술어, 관용구를 중심으로 70여개의 해설과 비판 칼럼까지 곁들여 국내 최초의 본격적 읽을 거리 겸용의 사전다운 품모와 내용을 갖추었다.

600년의 역사를 통하여 골프용어는 골프 발상지인 스코틀랜드를 시초로 영국, 미국의 순으로 점차 체계화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우리는 일제강점 때 일본인들을 통해 골프를 전수받은 탓에 그들이 만든 일본식 용어까지 이어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일본식 용어에 물든 우리 골퍼계의 언어순화에도 일조한다.

'매너가 좋은 골퍼를 만든다'(Manner make golfer)는 격언을 통해 알수 있듯이 말씨는 바로 매너이기도 하다. 이책은 바로 그 말씨의 길잡이라고 할수 있다.

프마니아인 저자는 이번 책까지 골프관련저서 총 17권을 펴냈다.

'읽는 골프'의 재미 있는 知的 길라잡이

교양 있는 사회계층인 인텔리, 기업체 임원, 골프 관련 단체나 기관의 전문 종사자, 매스미디어 요원을 위하여 재미 난 풀이 등으로 꾸민 골프용어 전반의 유머러스한 가이드북이다.

골프에서 쓰이는 용어와 술어, 관용구 등은 어느 스포츠보다 다양다종하며 유머와 조크가 풍부해 지적인 골퍼에 Real golfer라면 호기심에서도 배우고 교양을 위해 탐구할 만한 가치를 지닌 또 하나의 '골프' 분야이다. 특히 국제화시대를 사는

· 회우업체 탐방

〈경제풍월〉 발행인 裴秉休 회우

요즘 좌파들은 우파인사들 중에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 사람에게 극우라고 몰아대고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극우라면 질겁하면서 아니라고 손을 저어댄다.

김동길, 박홍, 배병휴, 이도형, 조갑제... 이 분들이 과연 극우인가? 더군다나 좌파들이 지칭하는 '보수꼴통' 인가?

그분들은 보수꼴통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이 땅의 주인의식을 갖고 곳곳이 순수 보수우파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런 극우라면 나쁘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이 땅에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데 공헌했고 지금까지 지켜지는 이유는 그나마 '극우'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8주년 맞는 〈경제풍월〉과 함께

자타가 인정하는 극우 아니 순수 보수우파인 월간 〈경제풍월〉 발행인 배병휴(裴秉休) 회우!

요즘같이 좌파가 설치는 때 괜히 질타를 받으면 주눅이 들 법 한데 바깥 분위기에 동요될 없이 소신을 뚜렷하게 펴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의 소신을 듣기 위해 충무로 매일경제 맞은 편 옛 동화통신 건물 5층에 자리한 〈경제풍월〉 편집실을 노크했다. 객이 온 줄도 모르고 원고 쓰기에 바쁘다. 아직도 하루 평균 80~100매를 쓴다니 그 열정이 놀랍다. 어디 그 뿐인가. 자주 지방자치단체 등의 초청을 받아 강연도 한다.

글 쓰는 책상 벽에 붙어 있는 다소 생소한 한시(漢詩)가 눈을 끈다.

雪夜獨坐 (눈 오는 밤 홀로 앉아)
金壽恒

破屋淒風入
허름한 집에 찬바람 불어 들고
空庭白雪堆
빈 뜰엔 흰 눈만 쌓이는구나
愁心與燈火
愁心與燈火
근심스런 내 마음 저 등불과
此夜共成灰
이 밤 함께 재가 되어가네

이 한시는 조선조 문종 때 영의정을 지낸 김수항(金壽恒·1629-1689)이 진도 유배지에서 읊은 작품이라고 한다. 유배지에서 잠 못 드는 '불안한 작가의 마음'이 눈 내리는 겨울밤에 타들어가는 등잔불에 비유되어 드러나 있다. 요즘 배병휴 회우의 심경을 예들려 표현한 것일까. 겉에서 보이는 활달한 모습과는 달리 가슴 속 타는 그의 서정적인 외로움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배 사장이 자식처럼 키워 온 월간 〈경제풍월〉이 오는 8월 27일이면 어언 8주년이 된다. 대한민국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킨 '경험세대'들의 '성공모델'을 젊은 세대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뜻에서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이 책을 보지 않음으로써 기성세대들이라도 읽어서 그 내용을 전달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통권 95호를 펴내는 동안 온갖 풍상을 겪어왔다. 왜 이런 잡지가 질곡을 겪어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아무튼 그가 IMF로 매일경제를 그만 둔 뒤 1999년 퇴직금 1억6000만원을 갖고 창간했다. 그러나 3개월 만에 자금이 다 바닥. 그냥 주저앉을 수 없어 친지들로부터 십시일반 출자를 받아 1억3000만원의 자본금



▲ 좌파가 설쳐도 주눅들지 않고 '쓴소리'를 마다않는 憂國논객 배병휴 회우.

거침없이 할 말을 하는 '우익 논객' '대한민국 성공 모델' 메신저 자임



▲ 〈경제풍월〉 최근호(왼쪽)와 배병휴 회우 칼럼집.

으로 주식회사('좋은 이웃집')로 다시 시작하여 관심을 모은다. 지금은 자리가 잡혀 우국(憂國)논객들의 글 마당인 우파잡지로 각인되어 있다.

대표집필자 김동길 교수는 자기 글을 한 자 고치지 않고 그냥 실어주는 매체가 미국 신문과 〈경제풍월〉뿐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골프 못치는 '1세대 전문기자'

배병휴 사장은 매경 기자시절 이병철 삼성 회장과 독대를 할 만큼 능력을 인정받은 기자였다. 어느 신문인가가 그를 '1세대 전문기자'로 표현했던 적도 있었다.

그의 이력을 들여다 보니 매일경제신문에 공채 1기로 들어갔는데 이후 세 번 재입사를 했다. 부장이 '어디서 여행티켓 좀 얻어 와라'와 같은 청탁을 하면 바로 책상을 뒤집어 엎고, 아파트 분양권 싸게 얻고, 벤처 주식 얻고, 공짜 골프 치는 후배들은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도 했다는 것이다. 사표 내고 다시 들어오길 반복한 거다. 원래 성격이 부정한 것을 보면 눈치 보지 않고 확 뱉어내는 스타일인 듯싶다. 어쨌든 오늘날 매경의 성공사례에서 그를 빼놓고는 이야기 할 수 없다.

"땅 한 평, 주식 한 주 없고, 골프도 못 치며, 손길승 SK회장, 구본무 LG회장 등과도 친하지만, 취재원한테 돈 한 톨 받아본 적 없다"는 배 사장. 그러니까 재벌을 옹호해도 당당한지 모른다. 우파에게 아쉬운 게 도덕성인데 그 점에서 배 사장은 흠잡을 데가 없다.

하지만 거침없는 '직설화법'으로 곧잘 '설화(舌禍)'

에 휘말리기도 한다.

욕먹는 걸 즐기는 매조키스트도 아니고, 그는 왜 힘든 길을 골라서 가는 걸까? 네티즌들의 표현대로 보수 우익을 대변하기 위해서인가?

노무현 정권 출범초기. 배 사장이 KBS '생방송 심야토론'에 출연하여 한 발언이 문제가 되어 일부 네티즌의 집중 포화에 시달린 적이 있었다. 그는 '참여정부와 언론 어디로 가나'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에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주장을 폈다. 그 자리에서 "조중동을 제외한 나머지 신문은 대부분 관변 신문"이라고 말하거나, 반대편 패널로 나온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사무총장과 친 정부적인 모 대학교 J 교수를 꾸짖기도 했다.

그 일로 인터넷 악플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학교에도 못가고 집 전화를 폐쇄할 만큼 곤욕을 치렀다고 한다. 반면에 방송이 나간 후 "속이 시원하다"며 〈경제풍월〉을 정기구독 하겠다는 전화도 많이 받았다고 한다.

극명하게 반응이 갈리는 그의 '입바른 소리'도 요즘은 방송에서 들을 수 없다. 초청도 없지만 제의가 들어와도 "발언의 자유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정치가 아닌 경제 분야에 대해서만 토론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5공 때부터 정치하라는 유혹이 많이 들어왔지만 거절했다고 한다. 정치를 하려면 돈도 있어야 하고, 체력도 좋아야 하고, 기생 기질도 있어야 하는데 그는 그런 거 못한다는 것이다. "그냥 한 시민으로서 제대로 된 나라에서 살고 싶고, 하고 싶은 말을 할 뿐이다"는 그의 말이 왠지 가슴에 와 닿는다.

존경하는 인물로 박정희 꿈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박정희 대통령을 꼽는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 자동차·조선·반도체 등은 박정희 경제의 산물이지요. 박 대통령은 '엔진 5개'로 경제성장에 매진했습니다. 즉 ① 국무회의 ② 월례경제동향 보고회의 ③ 매월 심사 분석보고 회의 ④ 매월 수출진흥 확대회의 ⑤ 방위산업진흥 회의로 독려해가며 대한민국을 키운 것입니다. 당시는 민주화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 아니었습니까?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노 정권의 핵심 유시민 씨도 박정희 대통령을 '성공한 독재자'라고 하네요." 배 사장의 직설 화법은 계속 된다.

"나 같은 경우는 '좌익과 우익'의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굳이 말해보자면 '자생적', '토종적인' 우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건국과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성공 모델 자체를 광장히 훌륭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모든 가치와 체제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우리는 그냥 그것을 지키려는 것 뿐입니다. 물론 기존의 정치인들, 혹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부분인 부패와 비도덕에 대한 지적은 옳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가치의 틀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명쾌한 그의 주장은 맞는 이야기다. 그건 우익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이 시대의 정론이 아닐까? (筆田)

詩

패랭이꽃

시·사진 황대연 (본회 감사)

머언, 아주 먼
그림자 같은 애기 속에

시간은
가 없이 궁륭(穹窿)한 하늘에 묻혀
멤돌다 사라지고
그 속에 여울지는 추억

산 허리에 밀려난
팔발 이랑길 잔디 뉘에는
못 다 한 사랑인가
진분홍으로 얼굴 가리며
플숨 같은 뜬구름을 이고 있는데



찢어지는 매미의 울음과
차라리 따가운 햇볕을
보듬어 안고

못 이룬 사랑은
새벽 안개 속에 묻어 버리자
나,
지금
하염없이
항아리처럼 비어 있는 가슴속에
그래도
오늘의 추억이 쌓여 가고 있다.

♡ 회우가족 코너



동양화가 한영옥 여사(사진·홍원기 회우부인)가 서울대에서 동양화를 전공한 화가들의



모임인 한국화회(회장 한영옥) 40주년 특별전(7월 11 ~ 16일)에 작품 <솔뜨락 변주곡 010>을 선보였다.(그림)

이번 전시회에서는 동문 선배 작가 40여명이 수묵, 담채, 산수, 실경, 정물 등 구상에서 추상에 이르는 다양한 작품을 보여줬다.

요즘...



회우동경

• 이혜복(李蕙馥)회우(본회 고문)= 20 일 정인영 명예회우의 1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21일엔 서승벽 회우(본회 이사)의 삼성의료원 빈소를 문상했다.



서울신문사 사우회 출범... 회장에 申禹植 회우



서울신문사 사우회(약칭 서우회 · ☎ 02-2000-9581)가 7월 20일 출범했다.(위 사진)

서우회는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신문사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회 고문인 신우식(申禹植 · 사진) 전 서울신문 사장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부회장에는 김문진 전 전무, 정대식 전 사업국장, 김호준 전 편집국장, 김소유 전 종합조정실장을 각각 선출했다. 감사에는 권기진 전 출판편집국장, 유병욱 전 판매국장 등이 선임됐다. 김소선 전 흥사단 이사장, 안병준 전 기자협회장, 최흥운 한국언론재단 기금이사 등은 상임이사로 뽑혔다.

신우식 회장은 "모든 전직 사우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서울신문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모범적인 사우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인사했다.

산악회 7월 산행

대한언론인회 산악회(회장 조창화)는 7월 27일 관악산 무너미 계곡을 등반했다.(사진) 이날 삼복더위에도 회우 20명이 참여했다. 다음 산행은 9월말이나 10월초 1박 2일 코스로 해남 땅끝 달마산(해발 849m)으로 정했다.



알림

회우들이 펴낸 저서(著書)를 알려 주세요

‘대한언론인회 30년사’ 부록 편 회원명단 난에 회우 여러분의 저서(著書)를 아호와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8월 15일까지 대표적인 저서 두 가지와 아호를 30년사 편찬주간(정운중)이나 본회 사무처로 알려주시면 빠짐없이 실겠습니다.

• 보낼곳

- 정운중: ☎ 017-355-6211 E 메 일: juj6211@hanmail.net
- 사무처: ☎ 732-4797, 2001-7621 팩스 730-1270

※ '30자 발언' 도 마감이 지났으나 추가로 받겠습니다.

30년사 편찬위원회

• 이억순(李億淳)회우(본회 이사 · 공생복지재단 고문)= 7월 11일 일본 교토(京都)에서 열린 '고향의 집 · 교토' 기공식에 참석하고 귀국. 재일동포 고령자를 위한 노인 홈으로 오사카, 고베에 이어 세번째인 '고향의 집 · 교토'에는 한·일간 문화교류의 중심이 될 '문화홀'도 함께 세워진다.

• 이태교(李太敎)회우(서울부동산포럼 회장 · 서울사이버대학 석좌교수)= 한성대 대학원장직에서 물러난 뒤 (주)삼성 에버랜드 경영고문에 추대됐다.

• 이경남(李敬南)회우(한국발전연구원 원장)= 지난 6월 27일 서울 대치동 상제리제센터 갤러리홀에서 '참여정부 대북정책의 평가와 향후 방향'이라는 주

건국대통령 李承晩 박사 42주기 추도식



• 추도식에서 이승만 박사 아들 이인수 박사, 제재형 대한언론인회 회장,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 회장 이흥구 전 총리, 김정복 국가보훈처장이 헌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 제재형(諸宰馨)회우(본회 회장)= 7월 19일 오후 2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우남(雲南) 이승만(李承晩 · 1875~1965) 박사의 42주기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낭독하였다.

제재형 회장은 추도사에서 "강한 리더십이 그리울 때 생각나는 이름이 바로 이승만 박사"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면서 그 바탕으로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한 분이며, 불세출의 외교관이자 겨레에 봉사한 지도자"라고 회고했다. "건국대통령을 국부로 모셔야 나라체통이 선다"고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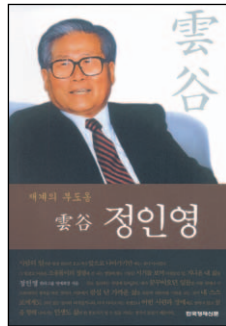
해외 나들이

• 송두빈(宋斗彬)회우= 7월 21일 방미. 뉴욕주 한인 침례교회 목사로 있는 아들(손경원)과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딸 집을 둘러보고 오는 9월 10일 귀국 예정.

• 임현태(林玄泰)회우= 7월 19일 해외 공관(영국)에 있는 아들의 초청으로 동서인 김종헌(金鍾憲)회우와 함께 부인들을 대동, 유럽 5개국을 순방하고 8월 말께 귀국 예정.

• 노영태(盧永台)회우= 지난 6월 28~7월 16일 소니 에릭슨에 다니는 아들이 있는 스웨덴 등 북유럽을 돌아보고 귀국.

鄭仁永 명예회우 1주기 맞아 자서전 '재계의 부도옹...' 출간



• 본회 명예회우였던 재계의 부도옹(不倒翁 · 오희이) 고(故) 정인영 한라그룹 명예회장의 1주기 추모행사에 맞춰 '재계의 부도옹 운곡(雲谷) 정인영'의 자서전(사진)이 출간됐다.

430쪽 분량의 이 자서전은 정 명예회장이 1999년 집필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간을 미뤄오다 이번에 출간됐다.



지구의 반대편, 그 반대편까지 세계 속에 행복을 짓습니다

아메리카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유럽에 기쁨을, 아프리카에 미래를,

중동에 미소를, 아시아에 희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플랜트에서 토목, 건축, 주택에 이르기까지

SK건설의 첨단 건설 기술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행복하게 합니다.





세계 이동통신의 중심에 대한민국 SK텔레콤이 있습니다

아시아 10개국 대표 이동통신사업자 연합체 BMA가입
유럽주요국 1위 통신기업연합체 Freemove와 제휴

2,100만 SK텔레콤 고객의 더 큰 행복을 위해
대한민국 사람 모두의 더 큰 자부심을 위해
SK텔레콤이 세계 최고의 통신기업들과 손을 잡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나 자유롭게 행복한 이동통신을 누릴 수 있도록
아시아를 넘어 유럽, 미국까지 세계로, 세계로 -
대한민국 1위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이동통신 기술로
더 큰 세상에서 더 큰 행복을 만들어가는 일
SK텔레콤이 앞장서겠습니다

사람을 향합니다



**BMA가입, Freemove제휴로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미주를 잇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BMA(Bridge Mobile Alliance)는?

- SK텔레콤과 SingTel(싱가폴), AIS(태국), Maxis(말레이시아), Bharti Airtel(인도), Telkomsel(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주요 11개국의 1위 사업자 중심으로 구성된 아시아 최고의 이동통신사업자 연합체입니다.
- BMA가입으로 WCDMA 로밍 커버리지 확대, 다양한 요금제 도입, 회원사와 제휴 마케팅 및 공동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나라 안에서나 밖에서나 SK텔레콤의 차별화된 서비스가 펼쳐집니다.

Freemove는?

- 2003년에 결성된 Freemove는 유럽의 주요국 1위 사업자인 Orange(프랑스), T-Mobile(독일), Telecom Italia Group(이탈리아), TeliaSonera(스웨덴) 및 그 자회사로 구성된 유럽 최대 로밍 연합체로 현재 미국을 포함, 전세계 28개국 약 3억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Freemove 제휴를 통해 회원시간 고속 데이터, 영상통화 및 MMS 등 한층 진화된 WCDMA 로밍서비스로 유럽과 미국에서 더욱 편리한 SK텔레콤의 서비스가 시작됩니다.